

EV/모빌리티팀

임은영 팀장
esther.yim@samsung.com

김현지 Research Associate
hyunzi.kim@samsung.com

▶ 종목 정보

현대차 (005380KS, 457,500)

목표주가 800,000원 74.9%

BUY

기아 (000270KS, 147,500)

목표주가 240,000원 62.7%

BUY

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자동차 (OVERWEIGHT)

5월 유럽 전기차: 중국 전기차에 무너지는 유럽 업체

- 중국 전기차의 해외 진출과 테슬라의 FSD 허용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 재편 중. 가장 극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곳은 유럽.
- VW 등 유럽업체의 구조조정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GM 구조 조정 규모를 넘어설 전망.
- Physical AI 시대에 모빌리티 시장은 과점 경쟁 구도 예상. 경쟁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업체는 유럽 업체가 될 전망.

WHAT'S THE STORY?

전기차 수요 성장세 확대: 유럽의 성장세 가속화. 중국 전기차업체가 VW 판매를 앞선 가운데, 테슬라와 기아의 판매 증가세 지속.

- **5월 유럽 전기차 수요:** 44.5만 대(+27.8%YoY)로 침투율 38.7% 기록. 전체 유럽 시장 수요는 115.2만 대(+3.5%YoY).
- **중국의 수요 둔화폭 축소:** 중국의 5월 전기차 수요는 95만 대(-7.4%YoY)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, 감소폭은 축소 중. 유럽의 전기차 수요는 중국의 절반 수준까지 성장.
- **중국 자동차 수출, 전기차가 50% 비중:** 중국 업체는 내수 시장의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의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수출 추진. 5월 전기차 수출은 43.4만 대(+112%YoY)로, 53.7% 비중. 가장 큰 수출 시장은 유럽. EU는 중국 전기차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상계 관세(10% 수입 관세와 별도: 업체별로 17%~35.3%)외에, 2027년에 IAA(산업가속화법) 발효 예정.
- **유럽 시장 내, 중국 전기차 M/S 26.9%:** 2월부터 VW의 M/S 추월. BYD는 5월에 스텔란티스를 제치고, 2위 업체 등극. 유럽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시장 M/S는 50.2%로, 2025년 1월에 60.7%에서 1년 6개월 만에 10%p하락. 독일 업체 3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중국 전기차에 2022년 이후 추월당했으며,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. 2010년 이후 독일업체의 최대 판매 시장 및 주요 수익원은 중국 시장이었으나, 이제는 Home market에서도 중국업체 대비 열세. VW는 2008년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당시의 구조조정보다 더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검토 중. 2008년에는 매크로 상황이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의 트리거였지만, 현재는 기술 변화가 트리거.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고 있어, 구조조정 이후에도 생존여부는 불투명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업체별 실적: 테슬라 판매 성장률이 +84%YoY로 가장 높았음. BYD(+72.9%YoY)를 포함하여, 중국 전기차의 고성장 지속(+75.2%YoY). 기아(+36.2%YoY)도 고성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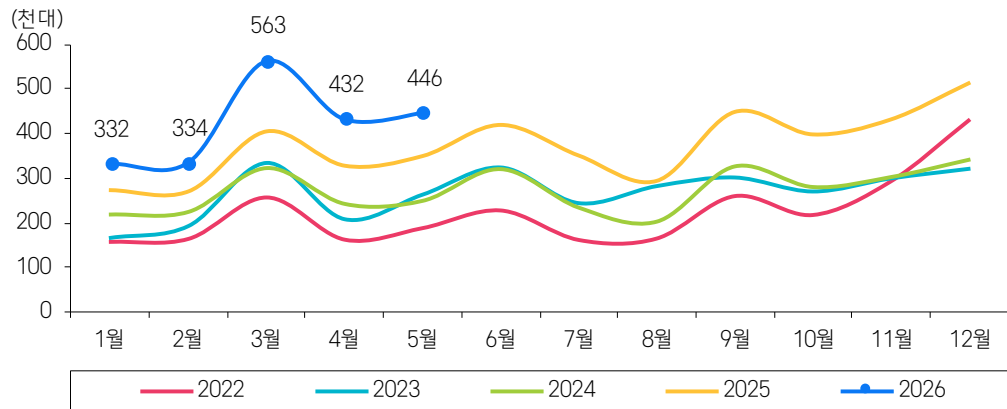
- **테슬라 M/S 6.3%(+1.9%pYoY)로, FSD 확산과 함께 판매 회복 지속:** 5월 판매 28,278대(+84%YoY) 기록. 감독형 FSD는 4월 10일에 네덜란드에서 먼저 허용되고, 리투아니아(5월 20일), 에스토니아(5월 29일), 덴마크로 확대. 유럽 전역에 배포할 수 있는 유럽 기술 위원회 표결은 10월 이후 예상.
- **VW, M/S 22.3%(-5.5%pYoY)로, 하락:** 2025년 4월에 M/S 27.9%를 피크로 하락 중. 5월 판매 99,353만 대(+2.7%YoY)로 시장대비 성장을 하회. 스코다 Elroq이 유럽 전체의 베스트셀링 모델(약 1만 대)에 등극하였고, ID 시리즈 판매는 꾸준하지만, 경쟁사의 성장에는 미달.
- **BYD, M/S 9.3%(+2.4%pYoY) 및 2위 업체로 도약:** 5월 판매는 41,637대(+72.9%YoY)로, VW에 이어 2위 업체 등극. 6월에 유럽 전용모델인 Dolphin G DM-i 출시 예정. 2만 유로 이하로 유럽 내 최저 가격 목표. 향후 3년간 B, C 세그먼트에서 유럽 전용 모델 출시 예정.
BYD는 2026년 하반기에 헝가리 공장 가동 예정으로, 보조금 수취를 위해 유럽 내에서 Value Chain 구축 예상. 최종 생산규모는 30만대이며, 초기에는 15만대 가동 목표. 첫 생산모델은 Dolphin Surf(중국명 Seagull)와 Atto2. 터키 공장(Capa 15만 대)도 2026년 가동 예정.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, EU와 관세 동맹국으로, EU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.
- **중국 전기차(BYD포함), M/S 26.9%(+7.3%pYoY):** 5월에 120,077대(+75.2%YoY) 판매. 2월부터 VW의 판매를 추월. 업체별로는 BYD가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, Geely 점유율은 6%대에서 정체. Chery, 니오, 샤오펑 등이 판매 증가.
- **현대차/기아, M/S 2.5%(-1.1%pYoY)/4.8%(+0.2%YoY):** 5월에 현대차 11,352대(-10.9%YoY)/기아 17,101대(+36.2%YoY). 현대차는 캐스퍼 외에는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부재로, 수요 성장을 하회, 아이오닉3가 하반기 출시 예정. 기아는 Full-lineup 구축으로 판매 증가.
- **기아, 2026년 3월 부터 5개 전기차 라인업으로 산업 수요 성장을 상회:** 기아의 2026년 유럽 판매 목표는 전기차 판매 고성장을 기반으로 59.4만 대(+11%YoY)로 제시. 기아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된 EV2가 국가별로 출시되면서, 판매 증가세. EV2의 2026년 판매 목표는 4.5만대, 2027년 판매목표는 10만대. PV5는 소비자 맞춤형 생산에 대한 효용이 알려지면서, 판매가 월 3천대 수준으로 증가. 2026년 판매 목표는 2.5만대.

참고) 주요 국가 전기차 부양책

2025년 하반기에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차 수요 부양책 재도입: 독일은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에 이어 리테일 전기차 보조금도 재도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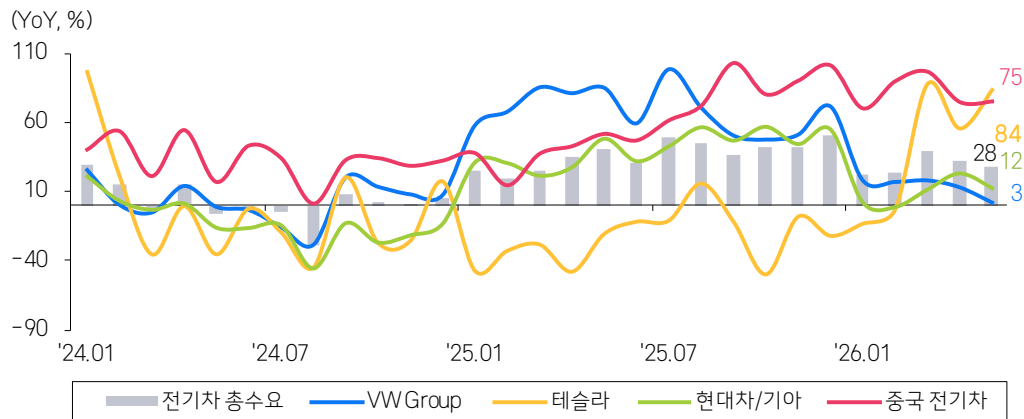
- **독일, 2025년 7월부터 대대적인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 실행:** 1) 2025년 7월~2028년 말까지 법인 전기차에 대해 조기 감가상각(첫해 40%, 둘째 해 24% 등 총 6년에 걸쳐 상각) 허용. 2) 법인 전기차 구입 시 차량 가격의 40%까지 세액 공제(최대 9.5만 유로) 3) 2035년까지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. 4) 법인 전기차를 임직원 개인이 사용할 경우, 차량 가격의 0.25%만 소득세로 부과. 내연기관차의 경우 1%. 유럽은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여,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로, 전기차 수요에서 법인 차량 비중은 40%. 2025년에 독일의 전기차 수요는 88.5만 대(+51.8%YoY) 기록.
- **독일, 2026년에 개인 구입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재도입:** 2023년 12월에 중단되었던 보조금을 재도입. 과거의 보편적 지원과 달리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. 1) 가구당 연 과세소득 8만 유로 이하가 기본 자격이며,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소득 기준 5천 유로씩 상향. 최대 9만 유로까지 허용. 2) 순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3천 유로~최대 6천 유로(중저가 전기차 가격의 10~15%). PHEV와 EREV는 1.5천 유로~4.5천 유로.
- **프랑스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:**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전기차시장인 프랑스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. 프랑스의 소셜 리스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, 한 달 만에 예산(6억 5천만 유로)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바 있음. 당시 해당 정책으로 약 한 달간 5만 대 리스 수요를 견인. 2025년에 프랑스의 전기차 수요는 47.4만 대(Flat YoY) 기록.
- **영국, 2025년 7월 16일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:** 영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시장. 7억 파운드의 구매 보조금과 6300만 파운드의 충전 인프라 투자, 생산 밸류체인 보조금 예산 발표. 2029년까지 운영 예정으로, 차량가격 3.7만 파운드 이하 전기차에 대해, 1,500~3,750파운드 지급. 2025년에 영국의 전기차 수요는 73.5만 대(+28.7%YoY) 기록.

유럽(EU+동유럽): 전기차 수요 월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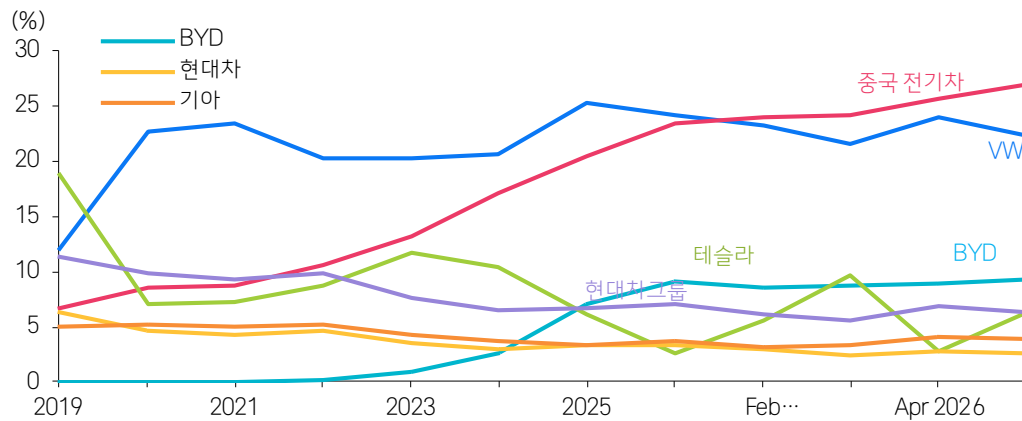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유럽(EU+동유럽): 주요 업체 YoY 판매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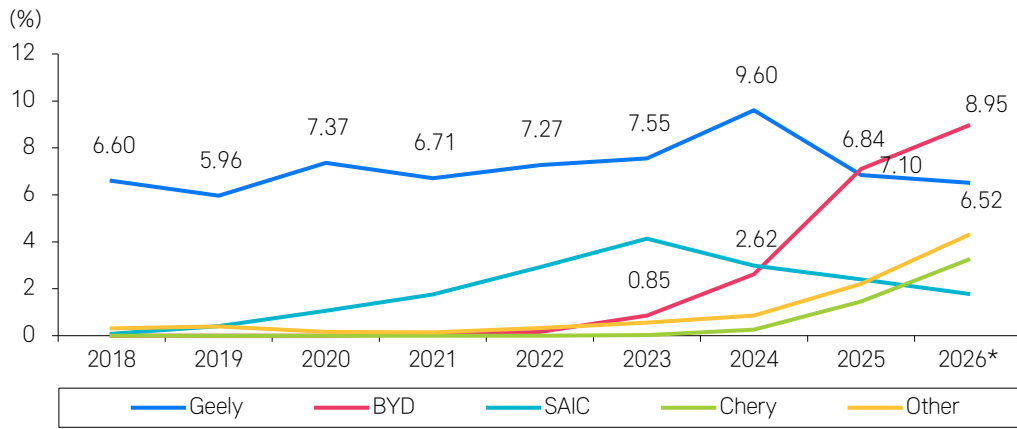
자료: Marklines, 삼성증권

유럽 전기차시장: 주요 업체 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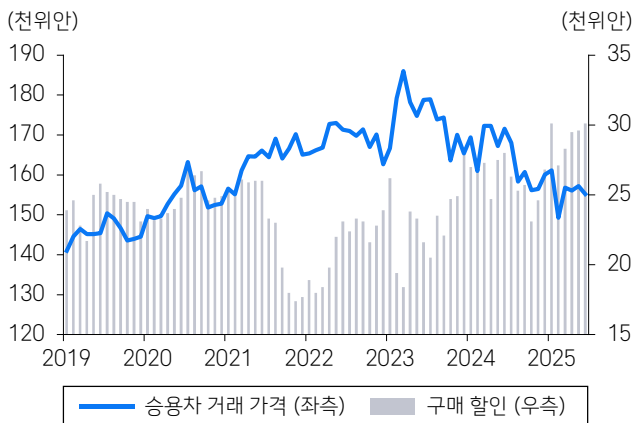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유럽 전기차시장: 중국 업체 점유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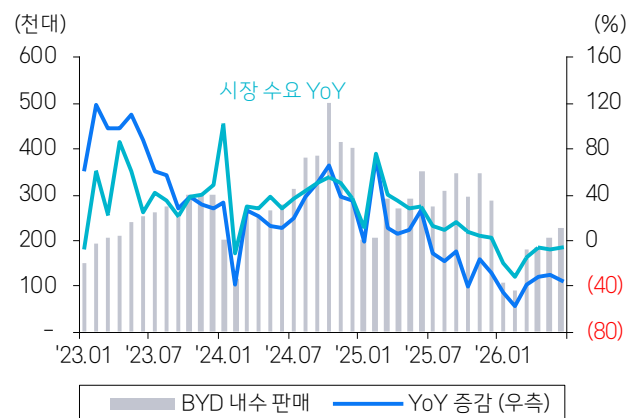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중국 시장: 승용차 거래 가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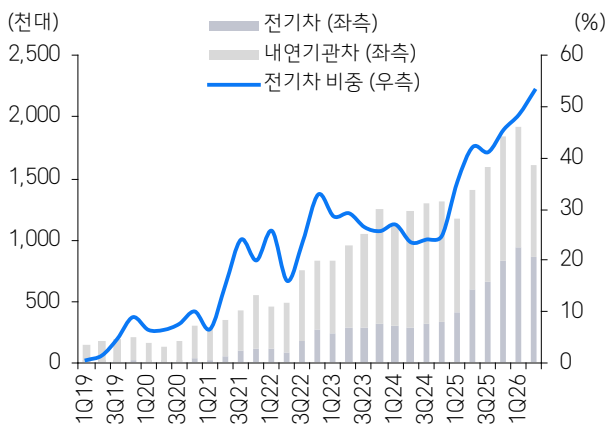
자료: Wind, 삼성증권

BYD: 중국 내수 판매 9개월 연속 감소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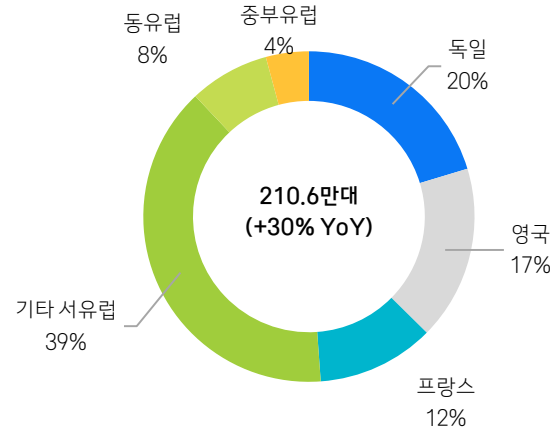
자료: CPCA, 삼성증권

중국: 자동차 수출



자료: CEIC, 삼성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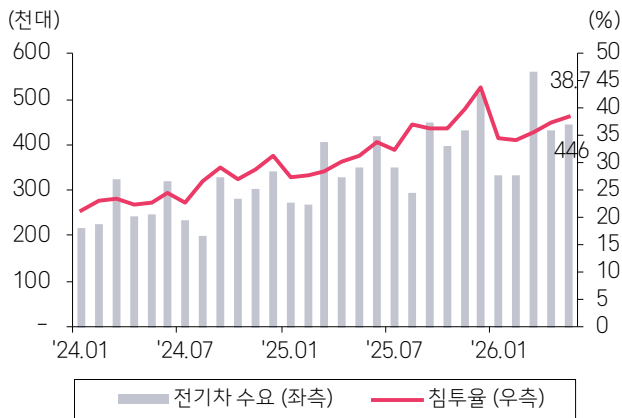
유럽: 국가별 전기차 수요 비중



참고: 5월 YT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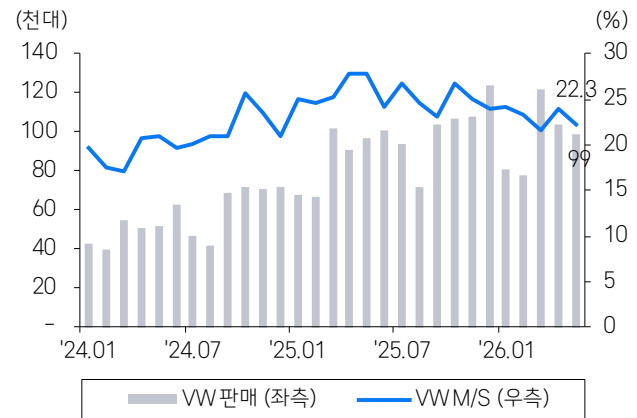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유럽 전기차 수요 및 침투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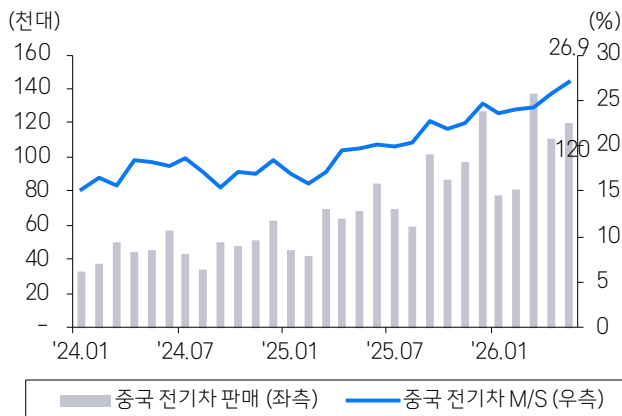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유럽시장: VW전기차 판매 및 M/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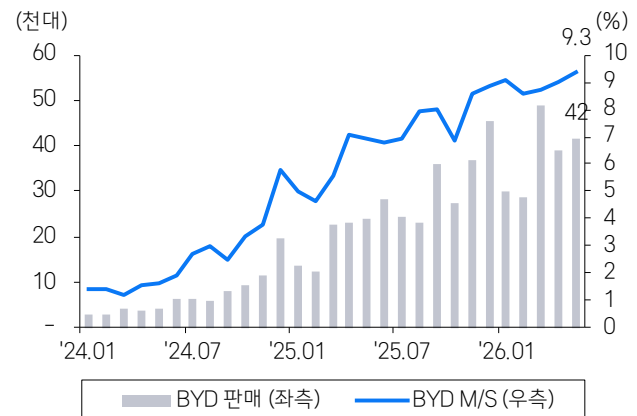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유럽 시장: 중국 전기차 판매 및 M/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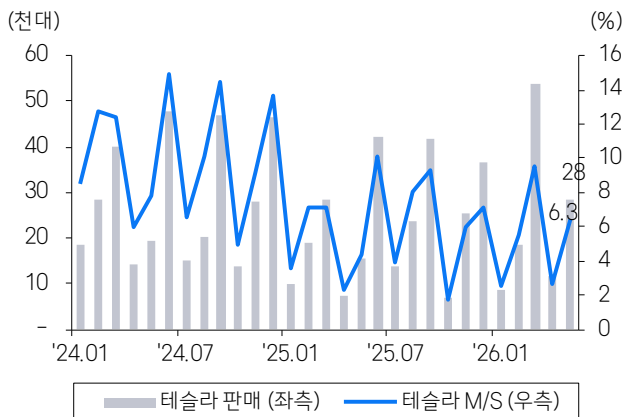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유럽 시장: BYD 전기차 판매 및 M/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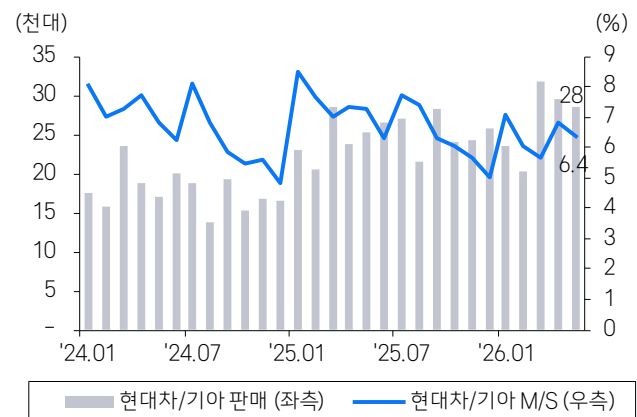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유럽 시장: 테슬라 판매 및 M/S


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유럽 시장: 현대차/기아 전기차 판매 및 M/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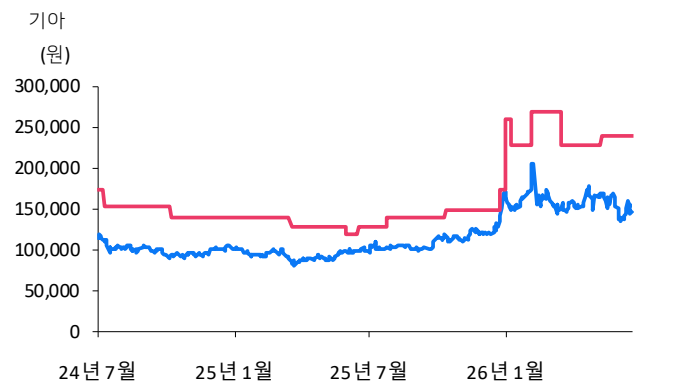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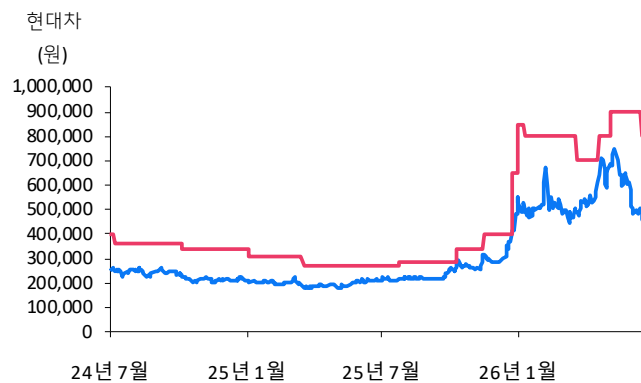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EV-Volumes, 삼성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7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2026년 7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



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(수정주가 기준)

현대차												
일 자	2024/6/25	7/26	10/25	2025/1/24	4/7	8/14	10/31	12/8	2026/1/14	1/22	1/30	4/7
투자의견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
TP (원)	400000	360000	340000	310000	270000	285000	340000	400000	650000	850000	800000	800000
과리율 (평균)	-31.63	-32.30	-37.27	-34.90	-26.06	-20.49	-20.69	-22.55	-27.91	-40.91	-35.99	-37.66
과리율 (최대or최소)	-25.50	-28.06	-33.38	-28.39	-17.41	-7.02	-7.35	1.50	-15.54	-37.88	-15.75	-36.50
일 자	4/10	5/11	5/27	7/7								
투자의견	BUY	BUY	BUY	BUY								
TP (원)	700000	800000	900000	800000								
과리율 (평균)	-23.42	-17.04	-34.07									
과리율 (최대or최소)	-12.43	-11.00	-46.61									
기아												
일 자	2024/7/4	7/29	10/28	2025/4/7	6/20	7/7	8/14	11/3	2026/1/14	1/22	1/29	2/25
투자의견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	BUY
TP (원)	175000	155000	140000	130000	120000	130000	140000	150000	175000	260000	230000	270000
과리율 (평균)	-31.41	-34.54	-30.66	-30.49	-17.88	-21.50	-24.00	-20.38	-7.53	-40.63	-30.12	-39.27
과리율 (최대or최소)	-27.83	-27.68	-23.79	-23.38	-15.75	-15.08	-14.36	-9.33	-1.66	-38.85	-24.35	-23.70
일 자	4/7	6/1										
투자의견	BUY	BUY										
TP (원)	230000	240000										
과리율 (평균)	-30.51											
과리율 (최대or최소)	-21.96											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: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.

*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

기업

- BUY (매수)
-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% 이상
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
- HOLD (중립)
-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-15%~ 15% 내외
- SELL (매도)
-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-15% 이하

산업

- OVERWEIGHT(비중확대)
-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% 이상 상승 예상
- NEUTRAL(중립)
-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(±5%) 예상
- UNDERWEIGHT(비중축소)
-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% 이상 하락 예상

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.06.30 기준
매수(85.5%)·중립(14.5%)·매도(0%)
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

Member of
**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**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